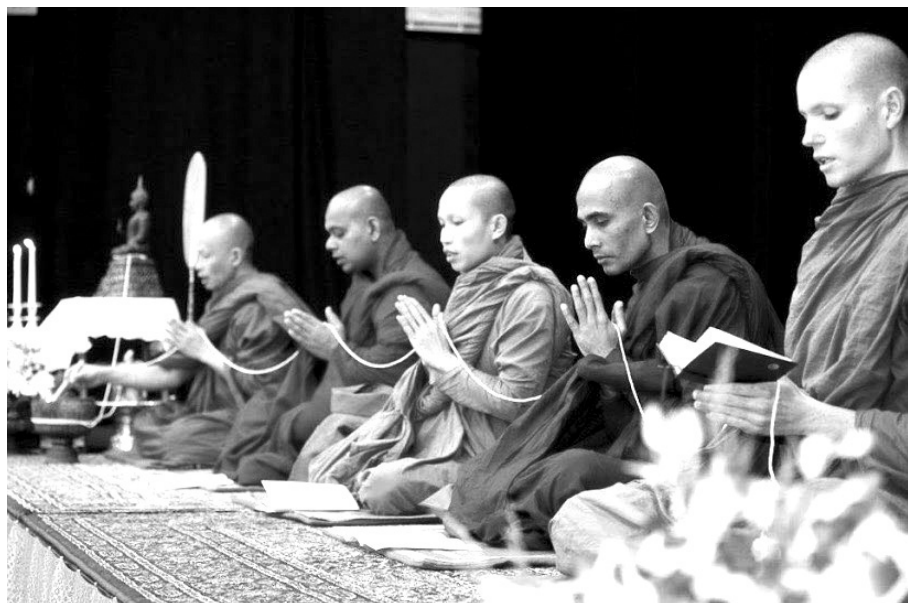


# 英 캠프리지, 불교 사원 건설 서원 '꿈틀'

### 11월 5일 '붓다 메타 캠프리지' 창립법회 봉행 영국계, 태국계, 티베트계 등 대거 참여 범종파 불교단체 결성

불교 사원 보다는 명상 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영국 캠프리지 불교계가 도심 한복판에 사원 건설을 서원하고 나섰다. 온라인 매체인 캠프리지뉴스(cambridge-news.co.uk)는 지난 5일 "캠프리지에서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캠프리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스리랑카·베트남·버마·티베트계 등은 물론 영국계 출·재가들이 니더홀(Netherhall)에 모여 범종파 불교단체인 '붓다 메타 캠프리지(Buddha Metta Cambridge)' 창립법회를 봉행했다"고 전했다.

여하의 등 캠프리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전하며 "이러한 지역의 관심은 1930년대부터 움트기 시작한 캠프리지 불교가 그동안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루앙 포 수도로 스님은 "8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캠프리지 불교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세워질 불교 사원은 캠프리지 지역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캠프리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스리랑카·베트남·버마·티베트계 등은 물론 영국계 출·재가들이 니더홀(Netherhall)에 모여 범종파 불교단체인 '붓다 메타 캠프리지(Buddha Metta Cambridge)'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 캠브리지, 1930년부터 불교 성장 "불교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 될 것"

않고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그 위상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캠브리지에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생각의 단초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국 왕립 사찰인 '라마 9 사원(Abbot of Rama 9)'의 스님들이 캠프리지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을 때, "캠브리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센터를 중심으로 명상을 배우고 있는 이 지역 불자들의 역동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곳에 불교 사원이 없어 안타깝다"는 말에서 시작했다.

뒤이어 2011년 뉴질랜드(New Zealand)에서 명상 센터를 운영하던 루앙 포 수도로 스님이 캠프리지를 방문, 지역 불교계는 물론 영국 각지에서 포교에 나서고 있던 아시아계 스님들을 만나 사원 건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했다.

그 결과 태국불교 공동체와 영국계 출·재가자들이 나서 붓다 메타 캠프리지 창립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스리랑카계, 미얀마계, 베트남계, 중국계 불교공동체가 속속 동참했다. 여기에 캠프리지대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첼 해리스(Dr. Rachael Harris) 박사과 캠프리지 재학생들이 가세

해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첫 모금행사에 지역 주민은 물론 캠프리지와 이웃하고 있는 앵글리아(Anglia)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 놀랐다"는 레이첼 해리스 박사는 "창립법회와 모금행사에 참여한 400여 명 대부분 40~50만 파운드의 기부금을 쾌척하는 등 캠프리지 지역 불교계의 서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었다"며 분위기를 전하고 "사원 건설이라는 대장정의 여정이 뜻깊고 아름답게 회향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불교-중국철학사 교섭 연구 대가

### 세계의 불교학자(40)

팡리티엔 중국 인민대학 종신교수



팡리티엔(方立天·79) 중국 인민대학 종신교수는 불교사와 철학사의 교섭 양상에 주목한 학자다. 그는 연구 초기부터 두 사상체계를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방법 개발에 관심을 두었다.

1933년 3월 저지양성(浙江省) 용강(永康) 출생한 팡리티엔 교수는 네 시기의 학술 활동을 거쳐 자신만의 학문세계를 구축해왔다.

첫 번째 시기는 북경대에 입학해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던 해까지라 할 수 있다. 1956-1961년 북경대에서 수학하던 팡 교수는 펑요우란(馮友蘭), 탕용통(湯用彤), 런지위(任繼愈) 등의 대학자들에게 학문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에게서 철학적 학풍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61년 대학졸업을 졸업하자마자 중국인민대 철학계에서 교학 연구를 시작했다. 위진남북조시대와 수당시대의 문화적 중요성에 주목하던 그는 철학과 불교 두 분야를 연구했다.

이때 그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철학 사회 문화 예술 풍습 등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불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는 중국 철학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 통합적이고 상호 관련성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유불도(儒佛道) 교섭양상과 사상체계에 위대한 학문적 공헌을 남겼다.

당시 법존(法尊) 스님과 정과(正果) 대사 등에게 가르침을 받은 팡리티엔 교수는 스스로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 중국불교협회에서 주관하는 중국불학원에서 8개월 동안 생활하기도 했다.

1967년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연구 분위기는 침체됐다. 당시 지식인들을 천시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학문에 매진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때 그는 동료 교수들과 농장에서 노동을 할 정도로 힘겨운 시기를 보냈지만 <노신전집>을 읽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히지 않았다.

팡 교수는 1978-1987년 <위진남북조 불교논총(魏晉南北朝佛敎論叢, 1982)>을 저술했다. 이 책은 조판을 지금까지 수차례 판을 거듭할 정도 불교학의 명저로 손꼽힐 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명저다. 이 시기에 팡 교수는 불교 전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불교사상사료선편(中國佛敎思想史料選編, 4권 10책)>을 편집해서 간행했다.

또한 뛰어난 저서로 평가되는 <불교철학(佛敎哲學)>을 1986년에 펴냈는데, 중국대서영예사(1986년), 중국인민대학도 서우수상(1988년) 등 상을 받으면서 불교

입문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1988년 펴낸 <중국불교역사문화(中國佛敎與傳統文化)>는 불교와 중국문화의 관계에 주목한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윤리 문화 예술 등 각 방면에 걸쳐 불교와 전통문화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1990년에 간행된 <중국고대철학문제발견사(中國古代哲學問題發見史)>는 장다이니엔(張岱年) 선생의 연구 성과를 계승해 우주관 시공관 도덕관 철인관 지행관 등 12가지 분야의 성과를 총망라했다. 이때 팡 교수는 불교사와 철학사의 두 방면

### 인문학 분야에 조예 깊어

수많은 저술활동으로 학문적 공헌

<불교철학>은 인기 불교입문서

중국불교 독창성 규명

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그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불교철학을 연구했는데 이 성과를 집대성해 엮은 책이 <중국불교철학요의(中國佛敎哲學要義)>다.

그는 연구주제의 발굴과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개발, 기초 지식의 배양을 통해 중국불교사와 철학사의 관련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의 연구 방법론은 불교사상의 중국적 변용과 그 관련 양상을 탐구하는 데서 찾고 있으며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강조한다.

팡 교수는 중국불교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심성론(心性論)과 실천론(實踐論)이 그것이다. 그는 중국불교의 사상이 시대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종파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인간심성을 보는 시각도 모두 달랐다는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가 중국문화에 맞게 변화하게 된 원리를 찾는 것도 그의 주요 연구주제다.

이렇듯 왕성한 연구 활동과 저작을 간행하는 팡리티엔 교수의 모습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না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중국 당대회 기간 티베트스님 등 6명 분신

### 당대회 탄원서 든 노인 공안에 끌려나가

중국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개막한 11월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안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정치개혁과 인민 민주주의 확대를 역설했지만 밖에서는 역을함몰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들고 온 시민들이 공안에 끌려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났다.

제 인사 수백 명을 가택연금에 처하거나 체포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웨이보(微博)에 대한 검열도 강화해 민감한 시기에 당과 지도부에 대한 비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당 대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맞은편의 헨안문(天安門) 광장에서는 탄원서를 들고 대표들을 만나려고 했던 두 노인이 공안의 제지로 당 대회장 인근에는 가지도 못하고 끌려나갔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쓰촨(四川)성 아바(阿坝)현의 공안 건물 밖에서 15세 1명, 16세 2명 등 10대 티베트 승려 3명이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귀환과 티베트의 자유를 요구하며 분신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대회 개막 전날인 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들 동안 티베트인 6명이 독립을 요구하며 잇따라 분신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자유티베트는 "11월 7일과 8일 칭하이(靑海)성에서 20대 티베트인 여성과 남성이 각각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와세다대학의 예츠코 우치다 교수 연구팀은 "이 왕국의 미스터

## 거대한 돌의 비밀은 '운하'

### 양코르와트 사원 미스터리 밝혀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캄보디아 양코르와트를 구성하는 거대 돌의 미스터리가 밝혀졌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양코르와트 사원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과 CBS 등 해외언론은 11월 1일(현지시간) 양코르와트 사원의 비밀을 "크메르왕국을 건설한 크메르족이 운하로 사원을 건설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리한 거대 돌들이 수 백 개의 운하를 통해 운반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2세기 크메르족이 지은 거대한 석재 건축물 사원인 양코르와트의 외벽은 동서 1500m, 남북 1300m의 직사각형으로 웅장한 규모이며, 높이는 100m에 이른다. 건축에 사용한 벽돌은 500만~1000만개에 달하며, 한 개의 무게가 1.5t에 달하기도 한다. 때문에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거대한 건축물을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를 두고 수수께끼로 간주해왔다.

연구팀은 "고대 건축가들이 양코르와트를 빠르게 건축할 수 있었던 '비밀'은 운하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না 기자

이ানা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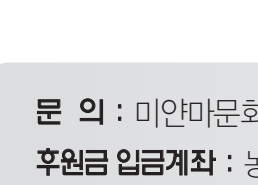
- 신병 출가익식 지원  
신병은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병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미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